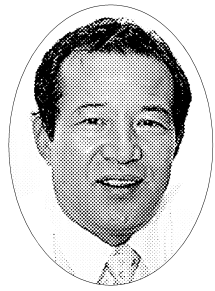


화요세평



문정기

광주전남 과총부회장

결국 사람들은 카이스트의 문제와 답을 카이스트 안에서만 찾으려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학생이든 교수든 총장이든 구성원 모두의 생각 또한 이와 같아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생각에 뜻을 달리한다. 지난 참여정부 때를 돌아보더라도 국가조직의 개혁 실패, 또 군의 개혁이 그냥 제자리에 머무른 것, 지역발전이 발목을 붙잡힌 것, 모두가 사실은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번 카이스트 문제 역시 불행하게도 변화에 필요한 모멘텀을 내부로부터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국내 과학기술 본산인 K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출발해 통합-

분리가 반복되는 수많은 역정을 겪어온 연구중심대학으로, 원래 학부보다는 연구에 무게를 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설립됐다. 2003년까지는 총장 대신 원장이란 호칭을 써왔으며 국립특수대학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구기관의 하나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듯 하다가도 특별법에 의해 형식 열외로 비껴나갔다.

학내엔 변화 필요한 모멘텀 부재

이게 다른 전문출연기관하고 다른 점이 다. 연구기관이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이 되다보니 틈새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름의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지금은 학부학생까지 전액장학금을 주는 세계유일의 이공계대학이 됐다. 이후 유사한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생겨났으며 명칭만 보고서는 일반인들은 물론 필자에게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카이스트는 잡지 인본교육은 멀리하고 학위만을 양산하는, 마치 생산성 위주의 자동기계와도 같은 공장으로 내비치고 있

카이스트의 교훈

다. SCI논문 몇 편, 연구과제 몇 개, 연구비 얼마, 학생지도 몇 명 등.... 그러다 보니 교육풍토, 교육철학, 교육환경과 같이 중요한 덕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같이 공장관리방식의 학생·교수의 평가제도와 인성이 고갈된 학사운영은 카이스트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놀라운 것은 도처에서 카이스트 닮은꼴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은 과분수처럼 머리만 커지고 상하도 좌우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매진하는 장애인 이 되고 만다. 영재라 하면 머리 좋고 지성도 좋은 인재인데 우리에게는 머리만 좋아 정해진 목표를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이뤄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저 모든 사람들이 카이스트에만 문제를 돌리고 국가교육정상화라는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국가교육제도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도 말이다. 이 몸살 제도는 우리나라를 카이스트 네 명뿐 아니라 OECD사망을 1위의 연평균 230명 자살에 20~30대 사망원인 1위의 대학을 가진 자살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근대국가로서의 과학기술부문 발전에 카이스트가 한몫을 했음을 부정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교육제도, 특히 국가과학기술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주변의 카이스트 같은 기관의 과점 운영체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40년 전의 절실한 카이스트 형태를 지금도 필요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교육철학 없는 학사운영 성찰을

우리지역의 가까운 예로 도립대학을 들어보자. 14년 전 설립 당시 지역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기여는 상당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전남엔 무려 44개 대학이 있고 일부를 빼고 나면 정원 채우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데도 이런 학생부족현상이 해소되리라는 진후나 해결책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시대 변화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 지나간 실패는 다 아쉽지만 그 실패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나간다. 카이스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나쁠 바무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지독한 고통이 수반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아침을 여는 시

내 고향

장경숙

예전에 몰랐어.
내 고향 그리 좋은걸
당신 사랑 이리 깊은데
너무 그리워 잊지 못한다.

고향 따라 발걸음 한량없고
설렌 마음 고향 업어
신묘한 살림살이
고향 산천 푸르고 푸르다.

가슴깊이 물든 석향 향해
고향을 바라본다.

[감상] 장경숙씨는 국악을 하는 여류 중견시인으로 고향을 그리는 작품이 많다. 고향은 어머니 품속처럼 따뜻하다. 고향 산천 어디인들 그림지 않은 곳이 없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너무나 혹독한 삶의 현실에서 잠시도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다 가끔은 푸르디푸른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은 삶에 지친 우리들 가슴에 정겨움으로 다가선다. /한국 사비문학인협회 회장 나일환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60년생 지금 이 시점이 누구를 위함인가를 생각해볼 것. 72년생 서로를 키워주고 위해 주어야. 84년생 미래에 대한 알찬 계획이 필요하다.



卯

39년생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도 좋겠다. 51년생 조심성 있게 오늘을 보내라. 63년생 행운의 여신이 내 편에 서주는 듯하다. 75년생 좋은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날이다.



午

42년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외롭다. 5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자세를 견지하라. 66년생 기회가 오지 않으니 좀 더 기다려라. 78년생 할 일이 갑자기 많아져 고민이다.



酉

45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57년생 나이에 비해 활동량이 많다. 69년생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계면에 해결한다. 81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승부를 걸어야.



丑

49년생 그동안 노력이 보답을 받는다. 61년생 사치스러운 마음은 버리고 알뜰할 것. 73년생 지금 의견을 철회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 85년생 핵심만이라도 잘 잡고 있어야만 한다.



辰

40년생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52년생 집안이 아난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64년생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할 때이다. 76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이익이 발생한다.



未

43년생 답답함도 해소되고 새로운 동무가 나설 것이다. 55년생 머지않아 기세가 높아지게 될 수 있다. 67년생 직장에 변동이 있는 날이다. 79년생 애처롭게 보임이 유리하다.



戌

46년생 기쁜 소식 끝에 행운이 따른다. 58년생 귀인이 나를 도우니 행운이 따른다. 70년생 일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라. 82년생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寅

50년생 생기가 넘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된다. 62년생 믿고 따라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74년생 마음 담은 선물로 감동을 주어야. 86년생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巳

41년생 오라는 곳이 갑자기 많아진다. 53년생 활동 폭을 넓혀야 유리하다. 65년생 부정적인 마음 버리고 긍정적으로 일 할 것. 77년생 휴대 전화에 즐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申

44년생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56년생 마음을 넓게 쓰면 어려움이 풀린다. 68년생 할 일은 많고 시간과 능력은 부족하다. 80년생 젊음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라.



亥

47년생 경기장이라도 찾았다면 활력이 생긴다. 59년생 피로가 겹치니 건강 돌보아야 할 때. 71년생 애정에 속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83년생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온다.

사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정한 일꾼 뽑아야

4·27 재보궐 선거가 막판 극심한 혼탁·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려했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간 원색적인 비난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차분하게 정책대결로 흘러야 할 이번 선거가 이처럼 혼탁해 진 것은 여야가 대선 전초전 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당간 대결로 몰아간 탓이 크다.

화순군수 재선거가 가장 격정적이다. 이곳 선거는 민주당과 무소속이 치열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혼탁양상이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모 후보자 관계자와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시설 관계자도 고발됐다.

24일 현재 전남지역 재·보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 행위 건수는 고발 4건, 검찰 이첩 1건, 경고 15건 등 무려 20건에 달한다. 특히 화순군수 재선거의 경우, 과열·

혼탁 선거구로까지 지정,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또다시 '고소·고발잔치' 전개됨에 따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터이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분당을·김해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여야간 혹은 후보자 간 고소·고발과 지방전으로 일목지고 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에맞서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맞불신고 등 사생결단식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부끄러운 행태를 바로잡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내가 사는 곳의 성실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잘못 뽑아 또다시 재보궐선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유권자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욕식을 가리는 후회없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연예인 신상탈기’ 사생활 침해 아닌가

서태지·이지아씨 결혼과 이후에 관한 파문이 마녀사냥식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들의 이름을 내세운 사이트가 개설돼 과거 행적과 사생활 등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공격 범 위에는 가족과 친지들까지 포함될 정도다. 서태지씨 등의 사생활 파헤치기가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섰다. 둘 사이의 비밀이 드러나자 마자 인터넷에는 ‘이지아닷컴’이 개설돼 제보성 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언론보도 내용과 네티즌들의 제보가 실시간 업데이트되며 과거행적이 공개되고 있다. ‘서진요닷컴’이란 사이트도 마련돼 운영자가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소위 ‘연예인 신상탈기’는 미확인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주변인까지 곤욕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신상탈기는 주목받는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사실에 네티즌들이 호기심과 반발심이 겹쳐 있다

고 보여진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사이트에는 상업성 광고까지 실려 연예인 사생활을 캐서 돈벌이에 나선 정황도 있다. 근거없는 ‘카더라’ 식 폭로전은 후유증이 만만찮다. 지난해엔 가수 타블로가 미스텐포드대학에 다니지 않았다는 학력위조설이 퍼지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네티즌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타블로는 해당학교에서 졸업증명을 발급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뒤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한 건 터뜨리고 보자는 선정주의의 해악임에 분명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파헤칠 권리가 없다. 서태지·이지아씨 역시 결혼과 이후에 관해 공개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연예인의 의무인양 공격하고 주변인들의 신상마저 파헤치는 건 맹목적인 행위다. 공인에 대한 정보취득 욕구에 앞서 사적 생활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 발행·편집인 申龍浩 편집국장 李斗憲					
대표 전 화 (062)720-1000 · 구독 신청 및 배달사고 720-1098-99					
기사 제보 F A X 논 설 실 정 치 부 경 제 부 사 회 부		(062)720-1050-56 (062)720-1080-82 (062)720-1032 (062)720-1060-62 (062)720-1065-67 (062)720-1050-56		사회2부 문 제 부 전 산 팀 사 진 부 광 고 국	
				(062)720-1043-44 (062)720-1070-72 (062)720-1033 (062)720-1040 (062)720-1016-17	
				서울지사 (02)704-2166 F A X (02)704-2167 인쇄처 다원 인쇄 E-mail=jndn@chol.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전화 : (062) 720-1075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4월 26일 (음 3월 24일)

긴급전화

▷ 여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학대 예방센터 1577-1391
▷ 노인학대 예방센터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생활정보전화

▷ 우체국 민원 1300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자원봉사센터 1365
▷ YWCA가정법률상담소 527-0011
▷ 인광 알고를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가정위탁지원센터 351-1206
▷ 수도 고장신고 123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철도안내 1544-7788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전국여객선터미널 1544-1114
▷ 전남도청 (061)286-2000
▷ 광주시청 223-3000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



머@세상

■ 여성용(?)

어떤 남자가 소변이 급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화장실로 뛰어들어 급하게 화장실 문을 열고 자신의 그것을 꺼내쉬~이 하려는데, 아가씨가 앉아 볼 일을 보고 있었다.

“까~악!! 여건 여성용 화장실이란 말이예요!!”
그러자 그 남자 왈,
“저... 이것도 여성용(?)인데요.”

■ 제비 구직광고

제비모 반공생을 살았던 썩시남이 어느날 취직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
부부 생활 책임지도, 제비 경력 풍부,

야간 성실 지도, 실습 위주, 최신행 자체 완전 마스터.

따로 보약값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분은 연락 주십시오.
-썩시남

신문광고가 나간 뒤 며칠이 지나 팩스가 날아왔다.

오래 전부터 당신 같은 분과 일하고 싶었습니다. 가부를 결정하여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리지널 팻맨

■ 아닌데...

철수와 영희가 배꼽 찌르기 게임을 했다. 가위,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임이었다. “가위, 바위, 보!”

철수가 이기고, 영희의 배꼽을 찌렀다. 그런데, 영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배꼽 아닌데...”
그때더니 철수가 하는 말
“나도 손가락 아닌데...”